

#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유족 “악한 처벌”

순천시 길 가던 10대 여성 살해 “술집 등서 추가 살인 대상 물색” 만취 ‘블랙아웃’ 상태 인정 안돼 피해자, 사형 선고 탄원서 제출



박대성.

법원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범’인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유족들은 “너무 악한 처벌”이라며 울분을 터트렸지만 박씨는 재판내내 머리를 만지는 등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상반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 40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변 인기척까지 확인한 뒤 10대 여학생 A양의 뒤를 쫓아

가 흥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씨는 1차 범행 이후에도 흥기를 소지한 채 2차 범행을 목적으로 홀로 영업장을 운영하던 여성들만 골라 술집에 들러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라는 등의 방식으로 살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왼쪽 가슴에 노란 명찰이 부착된 수의를 입고 선고 재판에 출석한 박씨는

긴장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이였다. 박씨 특유의 긴 앞머리를 수차례 손으로 만지며 몸의 중심을 좌우로 움직이는 등 재판에 집중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돼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확인하자 박씨는 그제서야 귀를 기울였다. 박씨가 지난해 11월 첫 공판기일에서 부인했던 살인 예비 혐의를 인정하면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길을 지나가고 있었을 뿐인 피해자 A양을 상대로 살인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칼을 허리춤에 숨기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술집과 노래방에 들어갔다. 한 업소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고, 한 피해자와 대화하거나 이동할 때 바지춤에 있는 칼을 손으로 잡는 모습이 CCTV에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은 주변의 다른 영업장과 달리 늦은 시간에도 영업을 하고 있었고, 주변을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던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살인 범행을 감행한 이후에도 추가 살인

범행에 나아가기 용이한 대상을 물색했고 구체적으로 범행 대상을 특정했으나 다른 손님이 있다는 등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계획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씨가 줄곧 주장했던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도 인정되지 않았다.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범행을 위한 준비 행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나 의식 상태에 법률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애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랑하는 가족의 외동딸이자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자 했던 피해자는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고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관해 웃음을 보이거나 농담을 하는 모습도 보여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하는 모습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감 사유에 대해서는 “범행 대상을 특정하고 범행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비추어 볼 때 계획적 범행인 동시에 순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치밀한 계획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 어려운 점,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기준을 밝혔다.

선고 재판을 마친 뒤 A양의 유족들은 쉽사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검찰이 박씨에게 구형했던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앞서 유족들은 세번째 치러진 공판기일에서 오열하며 주저앉는 등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양의 아버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라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서도 냈는데 너무 악한 처벌이 내려진 것 같다”며 “무기징역이 무슨 의미가 있고 전자장치 부착이 무슨 의미가 있나”고 울분을 토했다.

순천=민천기자

## 광주전남혈액원, 헌혈릴레이 선포식

헌혈자 3만3000명 목표 ‘정조준’ ‘생명나눔 확산...많은 참여 당부’

지속적인 헌혈인구 감소와 동절기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한 광주전남혈액원의 ‘사랑의 헌혈 릴레이’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시민편의 공간에서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이 주관하고, 전남일보·광주시청·한국도로공사·KBS광주·CMB·KCTV광주방송이 후원한 ‘70일간 사랑의 헌혈 릴레이’ 선포식이 개최됐다.

지난 2일 시작된 사랑의 헌혈 릴레이는 ‘1초의 찡그림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 바로 헌혈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매년 반복되는 동절기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마련됐으며, 오는 3월12일까지 70일동안 지역 곳곳의 헌혈의집과 헌혈 버스 등에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 신수정 광주시의장, 강운선 광주시 공공보건의료과장을 비롯해 후원·연관사대

표와 적십자봉사원, 대학RCY단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캠페인 성공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낭독, 후원금 전달 등의 식순을 마친 참석자들은 시청 앞에 배치된 헌혈 버스에서 헌혈을 하며 지속적인 ‘생명나눔’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광주전남혈액원은 캠페인 기간동안 헌혈자 3만3000명 달성을 목표로 캠페인 기간 모든 헌혈자 대상으로 SNS 헌혈 챌린지, 경품 추첨 이벤트를 연다. 단체 헌혈 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수여 및 커피차 지원 등의 프로모션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은 “매년 겨울마다 어려워지는 혈액수급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70일간 사랑의 헌혈 릴레이’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릴레이를 통해 우리지역의 생명안전과 생명나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사·도민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눈보라 속 퇴근길 시민들

광주지역에 폭설이 내리고 있는 9일 퇴근길 시민들이 광주 동구 YMCA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피하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나건호 기자

##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공정·투명한 진상 조사 촉구

국토부, 美서 블랙박스 추출 작업 “유족 지속 지원 위한 조직 구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이 참사 11일 만에 모두 영면에 든 가운데 참사 유가족이 수습당국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정보 공유를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제주항공 참사 종합지원센터는 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여객청사 2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과정을 유족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30일부터 치러진 희생자들의 장례는 9일 발인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장례는 모두 마쳤지만, 국토부는 무안국제공항에서 후속 업무를 이어간다.

현장에서는 계속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7일에도 군·경·소방 160여명



전남소방대원 등이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의 실종자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이 투입돼 수색에 나섰으며 현재도 경찰 관계자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추가 시신 편이 확인된 것은 38편으로, 이 중에서 12편은 유가족에게 인도됐다. 나머지 8편의 시신에 대해 신원이 확인됐으며 곧 인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나머지 18편의 시신에 대해서는 향후 합동 장례에서 함께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

한미합동조사팀은 항공기 블랙박스인 비행기록장치(FDR)를 미국으로 가져가

본격적인 자료 추출 작업에 나섰다. 국토부는 현지 시각 8일 오후 6시에 파손된 비행기록장치의 연결 장치(커넥터)를 연결했고, 이날부터 데이터 추출 작업에 착수했다.

또 국토부는 장례를 마친 유가족들이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해 텐트형 임시 쉼터(쉼터) 구역에 방역을 진행하고 방한 키트를 구비하는 등 재재비를 진행하고 있다.

유가족들의 트라우마 해소, 상속 절차 안내 등 지원을 위해 광주·전남의 일대일 매칭 공무원도 지속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1일 진행되는 유가족 총회의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며 “현재 국토부 내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만들고 있다. 유족분들과 많은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이뤄지는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이 기자

##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모욕글 올린 30대 추가 검거

9일 기준 167건 수사... 9명 특정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30대가 경찰에 추가로 검거됐다.

전남경찰 사이버수사대는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사고 여객기 기장을 모욕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해당 커뮤니티에 사고 여객기 기장을 모욕·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 속에 무심결에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까지 참사 희생자·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악성 게시글 167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휘말린 희생자 유가족의 보상 문제를 언급하며 모욕성 글을 올린 30대가 검거됐으며 9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민천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